

성서와 나

박치순

내가 제일 처음 성경을 갖게 된 것은 소년 시절 어느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. 가정은 믿지 않았고 살림은 넉넉지 못해서 성경책을 갖는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고작해야 궤도 찬송가를 부르거나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감격스런 찬송과 내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 속에서 전에 없었던 마음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주일학교에 다닌 덕택으로 눈이 하얗게 쌓인 날 아침 곡이 없는 발간 뚜껑의 찬송과 함께 내 생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성경책이 최우수상이라는 이름으로 내손에 들려졌습니다. 나는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. 정말 감격했습니다. 내가 주일학교를 마칠 때까지 그 책은 내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주일학교와 함께 소학을 마쳤으나 상급학교에 갈 형편이 못되 농사일을 돕게 되었습니다. 어느 주일 아침 오래전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시던 아버님께서 할 일이 많다면서 교회에 못 가게 하셨습니다.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여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. 그 때문에 나는 많은 매를 맞았고, 그것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그날 내 아버지는 그 빨간 뚜껑의 찬송과 그렇게도 귀한 성경책을 찢어 변소에 집어넣으신 일입니다.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온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픈 감정이 되살아납니다. 나는 그 길로 마음대로 예수믿고 또 전도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공부길을 떠나 평안북도 강계로 갔습니다.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독교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. 첫 여름방학에 집을 찾을 수 없는 나는 산수좋은 장수산 깊이 들어가 기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. 그때 나는 내 생을 변화시킨 놀라움을 체험하였습니다. 캄캄한 밤이었습니다. 바람소리와 물소리 외엔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. 나는 그때 조용히 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교회에 간다고 볼이 붓도록 아버님에게 매 맞던 일,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은 열심,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보겠다는 각오,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 같았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나는 새삼스럽게 수세기 전 교회사의 한 세대를 누빈 어거스틴의 회심 광경이 생각났습니다. 방탕하면서도 고민하던 그가 어느 날 정원을 거니는데 옆집에서 한 어린이가 책을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가 성경을 펴 읽는 동안 로마서 13장 13절 낮에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...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에 부딪쳐 새 삶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. 이 사건이 자꾸만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아 나도 성경을 펴 들었습니다. 그 때 나는 마태복음 5장 53절~4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.

나는 그 순간 그렇게 열심이고 잘 믿던 나도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있는 추악한 죄인인 내 모습과 그 죄인을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십자가,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 주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이때부터 손에 들고만 다니던 성경이 내 마음속에 기록된 성서가 되었습니다.

다. 크리스마스에 받은 성서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 찢겨졌으나 어느 여름날 숲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마음에 적어주신 말씀의 역사는 그 누구도 찢지 못하였습니다. 오늘도 나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하게 느끼이다.

“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(롬 8:38~39)”

(출처: <성서한국> 1970년 6월 30일 19권 2호)